“한국불교 살리는 30년 노하우, 무료 회향”

안심정사, 안심불교학술원 개원

9월 13일 간담회서 첫 공개
30년 사찰경영 성공노하우
“불교 미래 위해 전격 공유”
사찰 · 개인 누구나 신청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안심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회향의 법석입니다. 안심정사가 맨땅에서 지금의 위상을 가지기까지의 30년 성공 노하우를 응집하고 체계화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에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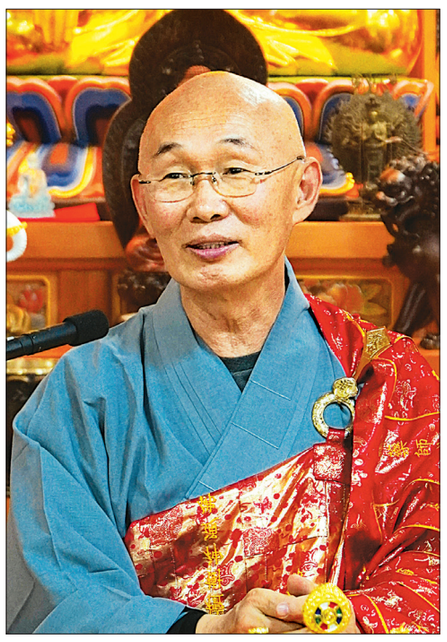
30년 세월동안 포교 분야에서 경이로운 성과를 기록한 안심정사(회주 법안)가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할 사찰들을 위해 핵심 노하우를 회향한다. 안심정사는 논산 시골마을 포교도량에서 시작해 서울 중심부인 강남 한복판 등 전국 주요도시 6개 도량으로 성장시켰고, 신도세대 1가구로 시작해 3만 세대로 확산시킨 포교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30년 포교현장에서 안심정사의 성장 주역으로 활동해 온 법안 스님은 “코로나사태로 크게 위축된 한국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년간 응집된 포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유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바로 안심정사 교육도량인 서울 안심불교학술원을 통해서다.

법안 스님은 9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심불교학술원의 취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최초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안심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가 살아남는 법을 공유하는 토대”로서 종단을 넘어 스님과 전법사, 일반불자들과 비불자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불교교육도량으로 포문을 연다.

안심불교학술원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불교 중흥이다. 그렇기에 모든 교육은 안심정사의 지원 하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무상교육임에도 퀄리티는 최고 수준이다. 금강대 前 총장 정병조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를 석좌교수로 위촉한 가운데, 한국불교 현장에서 남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각 분야 지식인들이 운영위원회와 교학위원회를 맡아 운영한다. 부설기관으로 불교 지도자 네트워크인 안심불교포럼도 동시 운영된다.

안심불교포럼은 고려대 前 총장 이기수 박사를 이사장으로, 백도웅 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도웅 목사, 남영진 KBS 이사장(前 한국기자협회장),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선경 고려대 의대교수, 김소연 피씨엘 주식회사 사장 등을 주축으로 한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연구위원으로 안심불교학술원 소속 20명 교수진이 겸직으로 참여한다.

안심불교학술원 교학위원회에는 사무총장으로 홍승기 동국대 명예교수(前 BBS사장), 기획처장에 범천 법사(인도 다람살라 티벳불교 IBD 과정 졸업), 교학처장에 청운 스님(인도 델리대 철학박사), 대외협력처장에 이현정 불교커뮤니케이션 대표(前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운영위원회는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을 의장으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원장을 맡는다. 실무진으로 안심불교학술원 부원장에 연수 스님, 감사에 안심정사 주지 혜신 법사, 사무처장에 인정 스님이 선임됐다.

홍승기 사무총장은 “신도 감소를 넘어 스님이 없다는 것은 종단을 떠나 한국불교의 진짜 위기가 도래했음을 방증한다”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이 사찰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사찰을 사찰로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확신을 가지면서 안심불교학술원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국을 강타한 후, 안심정사에는 더 이상 사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전국 일부 스님들의 인수요청이 잇따랐다. 사찰 수에 비해 스님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코로나 사태가 운영상 어려움을 가속화시킨 셈이다.

법안 스님은 전국 6개 도량을 통해 직접 포교현장을 마주하면서, 한국불교가 직면한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 유지가 힘든 사찰들이 사찰이 아닌 공간으로 변질되는 위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한국불교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 바로 ‘안심불교학술원’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안심불교학술원은 기존 사찰이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교육기관으로 구성됐다. 단적으로 실제 포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수에 방점을 둔다. 스님과 전법사, 재가자의 구분도 크지 않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원력을 가진 누구나 무료로 안심정사 30년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사위기에 놓인 사찰이 사찰로서 기능할 수 있고, 해당 사찰을 중심으로 불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안심불교학술원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다만 스님은 사찰 운영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도 그 핵심은 교학에 있음을 강조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교학이며, 두 번째가 설법, 세 번째가 의식, 네 번째가 봉사 등 대사회실천이라는 것이다.

결국 안심불교학술원의 토대는 사찰 경영의 실질적인 노하우에 대한 공유지만, 나아가 교학과 의식, 실천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정병조 석좌교수를 비롯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강사진을 구축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안 스님은 “안심불교학술원은 사찰이 사찰답게 유지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평생 동안 불교의 정수를 배우고 익히는 장기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는 중”이라며 “사부대중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는 만큼 스님과 전법사, 불자와 비불교인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적법성 인정받은 법화종 총무원, 정상화 착수

9월 8일 임원 회의서 조치 논의
9월 13일 소송 결과 · 현안 공고
“거암 스님 · 비대위의 종무행위 일체무효…종도들 피해 최소화”
종단협 종단 대표자 변경 추진

법원 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은 법화종 총무원이 그간 종단의 혼란을 종식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기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자격 논란이 완전히 종식됨을 알리고, 종단 혼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던 고시 · 법제위원회 등을 재가동하고 법계고시 회복 및 승려분한신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그동안의 종무행정 왜곡 및 공백으로 인한 종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법화종(총무원장 서리 혜문)은 9월 8일 임원회의를 열고 종단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대표자 변경의 건, (사)대한불교법화종 이사장 변경 확인의 건, 인사위원회와 고시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위한 절차의 건, 승려분한신고 및 법계고시 시행 등 그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던 종단 본연의 종무행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특히 법화종 총무원은 이 과정에서 종도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3일 전국의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을 포함한 전 종도들에게 ‘종단 현황(법원 결정 등) 안내 및 종무 협조의 건’ 공문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입장문을 발송했다.

총무원은 공문을 통해 그간 진행됐던 4건의 소송 취지와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2021년 1월 무효화된 前 총무원장 당선인 거암 스님 체제의 각종 임면처분 등의 종무행정과 올 3월 조직된 불법해종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행한 종무행정은 일체 무효”라며 “이로 인해 불이익 받는 종도들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실시해 반듯한 법석 위에 불국토를 장엄하는 종단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종도님들의 재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랜 부패와 부당한 징계 등으로 승려 분한이 미재돼 있거나 멸실된 분들의 회복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종 모략과 음해를 이어가는 해종 세력에 대응하는 한편, 정치적인 이유나 사암 이탈 가속으로 폐쇄 혹은 관리를 받지 못한 지역 교구가 활성화 ·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재)선학원, 법진 스님 이사장 재선출 추진?

9월 10일 선학원 이사회서 이사장후보 법진스님 추천
9월 28일 차기로 이월키로
선미모, 결사반대 입장천명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재선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후보로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이 후보로 추천된 데 따른 것이다.

내부 논의 끝에 해당 안건은 차기로 이월됐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학원이 또 성범죄자 이사장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다. 법진 스님은 이사장 소임을 맡은 당시,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죄가 확정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분원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포함해 10여 건의 안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진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기타안건으로 ‘이사장 선출의 건’이 논의됐다. 이사장 선출의 건은 前 이사장 송운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이후, 총무이사 지광 스님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됨에 따른 것이다.

선학원의 다수 이사 스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자, 한 이사 스님이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일부 이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법진 스님 외에는 이사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재선출에 힘을 싣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이사장 선출의 건은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차기이사회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인 ‘이사장 선출의 건’이 기타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출의 건을 9월 28일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이사 스님은 “9월 28일 열릴 이사회에서 혹여 법진 스님 외에 다른 이사가 후보로 나서겠다고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후보가 나오더라도 현재 이사 구성을 살펴볼 때 법진 스님이 이사장으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학원미래포럼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만약 또 다시 밀실에서 ‘최종진(법진) 4선 이사장 재선출’을 획책한다면 우리 창건주 · 분원장들은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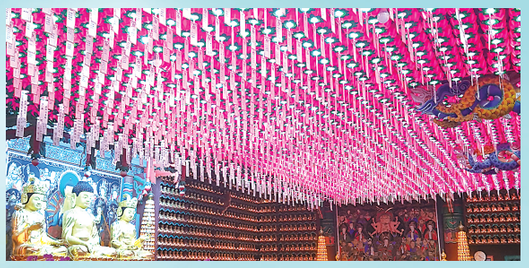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